



# 공정정보도

2011-3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 편집위, 오보 대응 태도 논의 4대강 사업현장 사고 보도도 점검

제3기 노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5월 26일 3차 회의를 열어 김정일 방중 보도에서 드러난 오보 대응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4대강사업 현장 사고 보도를 짚어봤다.

김정일 방중 보도와 관련, 노사는 김정은이 아닌 김정일이 방중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독자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후속 보도를 적절하게 했는지를 논의했다.

노측은 취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오보가 확인된 뒤에는 바뀐 상황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사측은 정부 소식통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2의 오보를 막기 위해 신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 보도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달아 일어난 사고를 다루기는 했지만 해당 사고들과 4대강 사업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기사는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노측의 지적에 사측은 장마철을 앞두고 4대강의 안전문제를 진단하는 시리즈 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회사는 6월1일 4대강의 장마철 수해 문제를 짚어보는 기사를 내보냈다.

회의에는 노측에서는 공정정보도위원회 고흥규 간사, 류지복 부간사, 현윤경 총무, 정성호 노조 사무국장, 사측에서는 김성수 편집상무, 이래운 편집국장, 김대영 국제국장, 김용수 지방국장, 이선근 통합뉴스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채삼석 기사심의실장이 옵서버로 함께 했다.

### 〈요약〉

#### ◇ 김정일 방중 보도

■ 노측= '김정은 단독 방중' 보도를 연합뉴스가 선도했다. 그러나 이후 방중 주체가 김정은이 아닌 김정일로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오보였다. 이와 관련해 오보 그 자체보다도 오보임을 확인한 이후 대처하는 태도에 관심을 두고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일부 언론이 오후 5시쯤 방중 주체가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라고 보도했지만 우리는 오후 6시 35분에야 해당 기사를 다뤘다. 김정일 방중 사실 확인 이후에도, 앞서 출고한 기사를 대체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종합'하는 형식으로 다뤘다. 독자들에게 바뀐 상황을 알리는 '알림'을 공지한 것도 늦었다. 앞으로는 오류를 발견할 경우 좀 더 용기있게 방향을 바꾸는 의사결정을 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사측= 김정은 방중은 점심, 오후까지도 다양한 채널에서 확인해준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사를 쓰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같은 채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바꾼 것이다. 정통한 소식통이 김정일이 방중한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을 듣고서 일부 언론은 바로 보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도 후속 취재에 들어갔지만 당국자들이 명확한 정보를 주지 못했고 끝까지 소스를 흐렸다. 또 팩트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먼

저 보도한 내용을 스스로 뒤엎는 것도 신경이 쓰인 측면이 있고, 김정은이 안 갔다는 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잘못 쓰면 오보를 두 번 내는 셈이어서 조심스레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 오보라고 판단했으면 과감히 바꿨겠지만, 고민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 ◇ 4대강 사업 관련 보도

■ 노측= 5월초에 봄비가 오면서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들 개별 사건 보도는 잘 됐다고 본다. 다만 4대강 공사과 이들 사고의 관계 및 구조적 문제를 짚어주는 것은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4대강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간게 5월19일이었는데, 대구.경북에서 5월초에 2-3건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리 보도할 수 있지 않았나.

■ 사측= 만약 구조적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으면 당연히 지적해야 할 문제다. 각각의 사고를 전하는 기사가 개별적으로 나갔지만 넓게 조망하지 못했고, 기사에 깊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 일부러 경시했거나 외면한 건 아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4대강 현장을 점검하는 기획 기사를 각 지역본부에서 준비해 6월1일자로 보도할 계획이다.

### 이달의 참글상

## 참글상 상금인상 뒤 첫 대상 탄생

참글상 상금의 상향 조정후 첫 대상(상금 100만원) 수상작이 나왔다.

공정정보도위원회(간사 고흥규)는 지난달 23일 5월 회의를 열어 '재벌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비판 등 7건'(증권부 박세연, 고유권, 이준서, 송혜진)을 이달의 참글상 대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해당 작품은 공보위원 19명 가운데 15명의 수상 적격 추천을 받아 회의 참석자 7명의 만장일치로 낙점됐다. 나머지 후보작 3건은 수상 적격 추천을 위한

정족수를 넘지 못했다.

이번 수상작은 정부가 재벌총수 자녀의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입증해 참글상의 취지인 '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에 제대로 들어맞았다는 호평을 받았다.

방대한 양의 기업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수상자들의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벌의 구시대적 부 세습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이끌어 냈다는 의미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최근 회사의 광고 매출 증가에 따라 주요 광고주인 국내 대자본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임에도, 정확한 팩트에 근거해 재벌 비판 저널리즘을 되살려낸 점도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해당 기사는 규정에 의해 연말 '올해의 참글상' 후보작에 이름을 올렸다.